

蔡萬植의 <冷凍魚>와 內鮮 戀愛의 問題

김 주 리 *

1. 序論
2. 帝國 女性을 향한 被植民 男性의 翻譯과 誤譯
3. 帝國 女性의 旅行과 被植民 男性의 定住
4. 結論

1. 서론

채만식의 <냉동어>는 1940년 《人文評論》에 발표된 中篇小說로, ‘딸의 이름’이란 副題가 붙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 소설은 意識上的 ‘냉동어’가 되어버린 日帝 末期 知識人像을 잘 드러내 보인 작품이라고 설명되며¹⁾ 작가 특유의 虛無主義, 冷笑主義 가운데 新體制를 事實로 受理하는 지식인의 내면갈등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²⁾ 또한 1930년대 발표된 <明日>, <敗北者의 무덤> 등에 이어진, 전망이 부재하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 인식이 궁극에 도달해 의식상의 零點상태에서 親日 傾向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간주된다.³⁾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비정년전임강사

- 1) 이주형, 1987 「채만식의 생애와 작품세계」 『채만식 전집 5』, 창작사, 366면
- 2) 허무주의의 表出, 浸潤이란 평가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김윤식, 1984 「채만식의 문학세계」 『채만식』, 문학과학사; 황국명, 1998 『채만식 소설연구』, 태학사; 이래수, 1986 『채만식 소설 연구』, 이우출판사; 장성수, 1997 「일제말기 소설과 현실인식」 『채만식 문학 연구』(국어문화회 편), 한국문화사 등이 있다.
- 3) 김홍기는 <냉동어>에서 스미꼬와 아내로 대변되는 갈등이 아내로의 복귀로 끝남으로써 민족과 자신의 收斂을 보여주기에 리얼리즘을 수호하는 것으로 본다. 방민호 역시 <냉동어>가 舊世代的 입장에서 세대론을 작품화한 것으로 세대와 민족의 분열을 통해 민족 정체성에의 향수가 은밀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김홍기, 2001 『채만식 연구』, 국학자료원; 방민호, 2000 『채만식 문학에 나타난 식민지적 현실 대응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고. 반면 정홍섭은 <냉동어>에 대해 앞선 작품의 냉소성이 지난 최소한의 건강성마저 탈색되어 긴장력이 상실된 까닭에 작품 말미에 친일문학적 요소가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정홍섭, 2004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 역락 참고. 대부분의 연구는 <냉동어>의 친일적 요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냉동어>를 친일소설로 확정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김지영, 2008 「저항에서 협력으로 가는 여성, 그 사이의 균열」 『한국현대문학연구』 26의 경우 친일소설로서 <냉동어>와 <여

작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냉동어>는 내선연애라는 소재나 피식민 지식인 남성 주인공의 태도, 허무주의적 가치관 등에서 첫 소설 <過渡期>를 연상시킨다. 두 소설은 일본인 여성과 조선인 남성간 混血 戀愛라는 소재를 그리면서도 짙은 허무주의 때문에 表面의 연애보다 裏面의 심리적 갈등에 먼저 주목하게 한다. <과도기>에서 주인공들의 내선 연애(정수-영자, 형식-문자)가 과도기적 산물로서 未婚한 아내를 둔 기혼남과 처녀의 연애라는 형식 속에 피식민 남성과 제국 여성의 결연이라는 문제를 숨기고 있다면, <냉동어>의 내선연애는 시대와의 不和라는 내면 갈등 속에 피식민 남성과 제국 여성의 결연이 가진 문제나 의미를 감추고 있다. <과도기>에서 내선연애는 封建 朝鮮과 植民地 近代 朝鮮의 과도기 속 남성 지식인들이 봉건-근대, 제국-민족의 중첩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냉동어>에서 피식민 남성 주인공의 내면 갈등을 드러내기 위해 왜 내선연애라는 서사가 필요했는지, 일제 말기 지식인 남성의 내면 갈등을 왜 제국 여성과의 연애와 결별이라는 형태로 형상화해야 했는지는 판단하기 애매한 문제이다. 1940년대 소설에서 제국 여성과 피식민 남성의 연애는, 주로 일본어로 창작된 소설들(한설아의 <그림자>나 <피>, 이광수의 <그들의 사랑>, 이효석의 <아자미의 장>, <푸른 탑> 등)에서 내선일체를 표방하는 동화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형상화되는 까닭이다. 제국 여성과 피식민 남성의 연애라는 제제의 특성상, <냉동어>를 해석함에 있어 내선 연애의 형상화가 가진 특징과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⁴⁾ 본고는 <냉동어>에서 제국 여성과 피식민 남성의 연애는 어떻게 가능한지, 내선 연애가 실패로 귀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패한 연애를 서사화함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세 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냉동어>의 의미와 가치를 재고해 볼 것이다.

인전기> 사이의 의식 균열을 밝히고 있다.

- 4) 제국 여성 스미코의 존재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민호와 김홍기 등의 연구에서 일본 여성으로서 스미코의 정체성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피식민 남성 대영이 스미코에 대해 느끼는 同一視 욕망을 간과한 채 差異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김양선은 民族談論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연구에서 <냉동어>를 언급하면서 스미코가 여성으로서의 자질보다 제국으로서의 자질을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식민주의 담론의 동화논리에 순응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김양선, 2003 「식민 시대 민족의 자기 구성방식과 여성」 『한국근대문학연구』 4권 2호.

2. 제국 여성을 향한 피식민 남성의 번역과 오역

제국 여성과 피식민 남성의 연애를 그리는 <냉동어>는 피식민 남성의 ‘번역’을 통해서만 제국 여성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內包하고 있다. <냉동어>의 서술자는 피식민 남성과 제국 여성의 소통이, 피식민 남성이 제국의 언어를 구사함(번역)으로써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숨기며,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번역 상 誤謬, 소통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린다. 그러나 번역이란 다른 언어의 구사 능력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사상과 행동을 再形成하여 기존의 형식(제국의 형식)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능력과 관련되기에 주어진 사회 질서나 관습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돌아볼 때, 제국의 언어로 자기를 번역하는 피식민 남성과 자국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제국 여성 사이에 동등하고 완전한 소통이란 불가능하다. 테자스위니 니란자나는 번역을 통해 피식민인은 제국의 눈을 받아들여 자신을 비이성적이고 낡고 유치한 존재로 생각하고 이러한 주체성을 부끄러워하며 합리적이고 성숙하고 남성적인 존재로 정의되는 제국의 주체성을 동경하게 된다고 본다.⁵⁾ <냉동어>에서 제국 여성과 소통하기 위해 제국의 언어로 자신과 주변 환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는 피식민 남성의 內面은 자기 문화에 대한 부끄러움과 제국의 주체에 대한 同一視 욕망을 내포하게 된다.

<냉동어>에서 제국 여성과 피식민 남성 사이의 소통이 제국 언어로의 번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서술자가 분명하게 지시하지 않는 반면, 첫 소설 <과도기>에서는 作家가 일부러 개입해서 일본 여성과 소통하기 위해 자기들끼리의 대화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하는 조선 留學生들의 상황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작자는 여기서 잠깐 한 말을 하려 한다.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은 대개 일본말로 그들이 하였다. 문자와 말을 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말로 하였지만 그네 조선 사람끼리만이라도 우리 조선말로 말을 하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문자에게 미안스럽다는 의식을 그네끼리 아무 약속이나 제정이 없었을지라도 본능적으로 의식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한 경험은 일본에 유학한 우리 조선 학생들 중에 지내본 사람이 적지 아니할 줄 믿는다.⁶⁾

5) 피식민의 문화는 제국의 언어로 번역됨으로써 제국의 관습이나 인식을 자기화하고 복종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피식민인은 스스로를 야만, 비문명, 비이성으로 주체화한다. 더글러스 로빈슨, 2003 『번역과 제국-포스트식민주의 이론 해설』(정혜옥 역), 동문선, 45-47면 참조.

6) 채만식, <과도기>, 『채만식 전집 5』, 244면.

‘일본에 유학한 우리 조선 학생들 중에 지내본 사람이 적지 아니할’, 일본어로의 자기 번역 작업이란 무엇보다 제국 여성(문자)에게 ‘미안스럽다’는 감정, 즉 제국 여성의 존재에 대한 ‘本能的’인 ‘意識’에서 비롯된다.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 유학생으로서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대화 상황에서도 늘 제국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청년들끼리 소통하면서도 일본어를 사용할 때, 일본어를 통해 번역되는 자신들의 문화나 정체성이란 淺薄하거나 절망적인 ‘과도기의 부산물들’로 전락한다. 제국 여성 문자와 피식민 남성 형식, 정수 사이에는 늘 번역이라는 작업이 가로놓여 있기에 그들은 서로의 내면이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욕망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반면 <냉동어>에서는 조선 남성의 일본어 번역으로만 가능한 제국 여성-피식민 남성의 소통이 번역이라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며 서로에 대한 親緣性을 아무런 오해 없이 확인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 ‘國語’로 지칭되는 일본어로 대화하는 조선인 문대영과 일본인 스미꼬의 관계에는 사실상 처음부터 오역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먼저 조선인 대영이 스미꼬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중호는 대영을, 현재 조선문단의 혁혁한 ‘중견 대가’요, 방금 조선 안에서 십만 독자를 거느리고 가장 ‘인기가 높은 이곳 문학잡지 『춘추』의 주간이요, 그밖에 무언 어떻고 무언 어떻게면서 마치 거리의 약장수가 만병수를 놓고 풍을 치듯이 갖은 최고급의 형용사를 종작없이 씨월테월, 소개랍시고 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스미꼬는 가리켜 조선의 각반 예술, 그중에서도 특히 영화에 대해선 이해와 관심과 동정이 깊은 분으로, 거기 관한 연구와 조력을 하기 위하여 멀리 이렇게 조선엘 찾아왔는데, 그래 아마 어찌면 영주를 할 듯하다고,⁷⁾

대영과 스미꼬는 “스미꼬의 편리를 위함인지, 외락 유창하지는 못하나마 중시국어(일본어)”(370)를 구사하는 영화감독 김중호를 통해 서로에게 왜곡된 형태로 번역 소개된다. 유창하지 못한 김중호의 번역 속에서 대영은 조선 문단의 중견대가이며 인기 높은 문학잡지 주간으로 식민지 문화 권력의 상층부를 차지한 존재, 스미꼬는 조선 예술에 관심과 동정이 깊은 제국의 移住者로 규정된다. 서로의 정체를 둘러싼 김중호의 번역에서 심각한 왜곡은 ‘약장수가 만병수를 놓고 풍을 치듯이 갖은 최고급의 형용사를 종작없이 씨월테월’하는 대영에 대해서보다 ‘조선의 각

7) 채만식, <냉동어>, 『채만식 전집 5』, 365면 (<냉동어>의 인용은 모두 이 책으로 하며 이후에는 인용면수만 표기함)

반 예술, 그중에서도 특히 영화에 대해선 이해와 관심과 동정이 깊은 분으로, 거기 관한 연구와 조력을 하기 위하여 멀리 이렇게 조선엘 찾아왔다는 스미꼬에 대해서 빚어진다. 김종호의 번역은 스미꼬의 내면과 이력을 전혀 담지 못하기에 그를 통해 대영에게 소개되는 스미꼬는 “제법 중추가 있고 내노라는 여자라고 한다면야 아예 쓰잘데없이 그때위 허무맹랑한 거조를 하려고 들 이치는 만무한 것, 소견머리 없는 품이 매양 김종호와 한바리에 실을 똑같이 데데한 축”으로 “아마 모르면 몰라도 뉘네 집 하찮은 오피스 걸이 아니면 다직 삼류 사류의 영화배우로, 실행을 했던지 실연을 했던지 하고서 핫김에 도피행을 해 왔기가 십상일”(370) 것으로 이해된다.

김종호와 대영이 스미꼬라는 제국 여성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제국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번역할 때, 그들의 자기(문화와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도 심각한 왜곡(轉落)이 일어난다. 김종호는 “자신을 제외하고 조선 영화감독 올 바보론”을 주장하고, 대영은 김종호를 ‘생철동이’ 부랑자나 다름없는 천박한 인간으로 치부한다. 번역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들은 제국의 논리, 즉 식민지인의 천박성과 유치함, 식민지 문화의 저열함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번역어가 자신에게로 향할 때 대영은 자신을 김종호와 같은 ‘시대의 룬펜’, ‘비뚤어진 빈집 속에 거주’하는 賤民으로 규정하고, 조선의 현실은 이방인에게 제대로 된 토속음식조차 대접하지 못하고 이해를 沒覺하는 동반자 없이는 잡지 하나도 꾸러가지 못하는 저열한 것으로 냉소한다. 즉 <냉동어>에서 시대와 불화하는 대영의 자기 인식이란 번역어를 통해 제국의 시선이 그의 자아와 식민지 현실을 관통함으로써 빚어진 것이다. 그의 정체성은 조선 문단의 혁혁한 대가, 인기 높은 잡지의 주간이라는 식민지 문화 권력의 자부심과, 유치한 천민, 시대의 룬펜이라는 제국의 시선(번역어) 사이를 오고간다. 김종호나 편집실의 박, 김, 춘추사의 사장 같은 피식민 지식층과 조선어로 대화할 때 그는 조선 문단의 대가이며 잡지 주간의 문화 권력을 가진 존재일 수 있으나, 스미꼬와 일본어로 대화할 때 그는 비뚤어진 빈집에 거주하는 시대의 룬펜이며 낡은 유물이 구중중하게 서 있는 조선의 천박성을 드러내는 ‘묵은 冊曆’일 따름이다. 그가 식민지 문화 권력의 자부심을 포기하고 제국의 시선을 借用하는 것은, 김종호와 같은 피식민 문화계층에 비해 스미꼬와 같은 제국 여성의 교양이 우월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훨씬 값진 모피 외투와, 윤 좋게 새까만 그 모피 자락으로 덮은 무릎 위에 놓였는 흰 손가락의 상당히 굵고도 잘 빛나는 다이아, 이 두 가지 물품의 썩 호사스러움에

문득 눈이 떠졌던 것이다. (중략)

‘저만큼이나 호사를 할 수 있는 신분이라며는.....?’

하고 되짚어 생각을 하노란즉, 방금 아까 뉘네 집 하찮은 오피스 걸이니 삼류 사류의 영화배우불이니 한 것은 아무려나 좀 동떨어진 짐작이던 성도 불렀다. (371)

대영이 제국 여성으로서 스미꼬의 정체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값진 모피 외투’와 ‘굽고도 잘 빛나는 다이아’ 반지라는 호사스러운 물건들로 치장된 그녀의 모습에서 제국의 사치와 교양, 階層的 優位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몹시 사치스런 몸치장으로부터 얼굴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며, 그 얼굴을 본 순간 “생각잖이 몹시도 (인상적으로) 침울하여 퍼뜩 놀라왔다. 얼굴을, 어떻게 생긴 얼굴인지 본다고 심상히 올려다보았던 것인데, 뜻밖에 표정만 그렇듯 인상적이던 것이다.”(371) 스미꼬의 얼굴은 그의 교양과 시대와의 불화를 설명하는 데 바쳐진다. “무엇보다도 그의 지적으로 세련된 총명한 기상이 매우 노블했고, 뿐만 아니라 거진 제 살결에 가깝도록 가볍게 다스린 화장이랄지, 색채와 무늬가 아하지 않고 잘 조화된 의복이랄지, 통틀어 전체의 풍모가 다 기품이 있어 보였다. 이러한 걸로 미루어(아직은 속단의 혐의가 없지야 않지만) 아무커나 우선 교양이 쌍스럽지 않음을 알겠었다.”(372) 그는 스미꼬의 외양으로부터 그녀의 교양을 읽어낸다. 이는 김종호의 중작없는 설명으로부터 그녀의 데데함을 읽어내는 것과 같은 오역이다. 총명한 기상의 노블함, 가벼운 화장과 조화된 의복의 기품이 그녀의 쌍스럽지 않은 교양을 대변한다. 그녀는 인사말 말고는 대화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데, 그는 그녀의 말없음조차 교양으로 간주하며 외양과 제국 여성의 교양을 직결한다. 사치한 물품으로 치장하고 우울한 표정을 가진 內地 여성의 얼굴은 피식민 지식인 대영에 의해 시대와의 불화라는 의미로 수용된다.

그렇다면 필경 갈데 없이 그것은 저 깊이 머릿속에 가 서려 있는 어떤 사색적인 세계로부터 우러나는 정히 절망된 한 개의 상심..... 이 증상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었다.

드디어 대영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와 동시에 불현듯 여자에게서 저 자신의 많은 일부분이 느껴짐을 느끼면서 새삼스럽게 정신이 들어 더럭 더 호기심이 끌리지 않질 못했다. (373)

대영은 ‘노블한’ 기품을 스미꼬의 외모에 투영하는 동시에 그녀의 우울한 표정을 연애-실연의 “근육적인 심장의 사건과는 계통이 다른”, ‘어떤 사색적인 세계로부터

우러나는 정히 절망된 한 개의 상심', 즉 자신과 같은 시대의 아픔과 상실감으로 해석한다. 스미꼬의 우울함을 시대적 상심으로 해석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피식민 지식인들의 번역에서 제국 여성 스미꼬의 정체성이란 비어 있는 것이어서, 그 속에 문화브로커 김종호는 조선 영화계에 동정을 가진 내지 귀빈을, 대영은 시대와 불화하는 제국 여성을 채워 넣고 있는 것이다. 즉 제국 여성은 피식민 지식인의 번역 행위 속에서 그들의 자아를 비추는 거울상으로 작용한다. 스미꼬는 김종호의 거울상으로 비춰질 때 그와 같은 데대한 축, 하잘 것 없는 룬펜-천민으로, 문대영의 거울상으로 비춰질 때에는 대영 자신과 같이 시대와 불화하는 '묵은 책력' 의식을 가진 존재로 나타난다. 김종호가 영화계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스미꼬의 정체성에 덧씌우는 것처럼 대영은 자신과 같은 시대의 아픔과 시대착오적 감각을 그녀에게 덧씌운다.

대영은 첫 만남부터 자신과 김종호 사이에 차별화를 작동시키는 반면, 스미꼬와 자신 사이에는 끊임없이 동질감을 작동시킨다. 그래서 김종호가 청할 때는 카페에 따라나서지 않으면서 스미꼬가 청하자 당장 일어선다. 김종호의 말 많음에는 소음이니, 양철동이니, 의미 없는 부역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스미꼬의 차례상 인사말에는 "섬뻍, 여자의 그만큼이나 소탈한 파격의 태도가 미소롭고 마음에 들었다."(375)와 같이 호의를 표한다. 그는 유창하지 못한 일본어로 떠들어대는 김종호의 문화론 대신에 제국 여성의 말 없음을 긍정하고 동일시한다. 대영은 여성의 외모와 표정과 패션에서 그녀의 시대적 우울과 교양을 번역(오역)해낸다. 자신과의 동질성을 김종호가 아니라 스미꼬에게서 조직하려는 욕망, 이는 결국 피식민 지식인으로서 같은 피식민 지식인이 아니라 제국의 주체와 동일화 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며 自己 植民性으로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제국여성은 풀이되어야 할 기호로 작용하며 제국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풀이과정 속에는 피식민 지식인의 자기 인식, 피식민인으로서의 자기를 부정하고 제국 주체에 동일시하는 과정이 개입하고 있다.

한때, 그러나 이미 한 꺼풀 망막 위에 드리운 관념의 베일이란 매우 기묘한 것이어서, 한 부분 한 부분을 차례로 그렇게 한번 씻어보고 난 다음 일순간 후에는 그와 같이 인상적이던 부분부분의 특징이 삽시간에 죄다 해소가 되면서 따로이 전체의 모습만 오래오래 사귀던 친구랄지 혹은 집안 권술 아무고 누구처럼, 조금도 낮이 설거나 어색한 구석이 없는 얼굴로 어느덧 동일 전화가 되어가지고는 담쭉 와서 마음에 안기는 것이었었다. (중략) 너무도 급작스럽고 또한 부진스러움이 없지 않았으나, 이른바 동류감으로부터 오는 보통 이상의 강한 친화력이라고 할는지 (382-383)

대영은 문득 그동안이야 한번도 마음이 내켜 가까운 친구랄지 아무한테고 일찍이 술회를 한 적이라고는 없는, 문제의 심경을 시방 무슨 내력으로 이렇게 섬뻍 만나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어찌면 노방의 사람에 지나지 못할 이 여자더러 두루 그것을 설파하는 것인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마음성이었었다. (398-399)

대영과 스미꼬의 연애는 피식민 남성의 제국 여성에 대한 오역으로부터 빚어진 다. 대영이 스미꼬에게 ‘오래 사귀던 친구랄지 혹은 집안 권솔 아무고 누구처럼’ 친근감을 느낄 때, ‘보통 이상의 강한 친화력’은 그녀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읽어내고 연애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스미꼬에 대한 자신의 호감을 깨닫는 동시에 당연하다는 듯 자신에 대한 스미꼬의 호감까지 上程하는 데 문제가 있다. 대영은 스미꼬의 감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는 스미꼬의 감정을 알기도 전에 그녀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강한 친화력을 느끼며 ‘기정사실인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게 수감’되는 연애 감정을 발현시킨다. 스스로를 묵은 책력에 빚대며 비뚤어진 빈집 속에 거주하는 내면을 가진 존재로 명명하면서도 그는 손쉽게 스미꼬에 대한 연애 욕망을 발동시키고, 이를 친근감과 同類感으로 설명한다. ‘너무도 급작스럽고 또한 부전스러운’ 친연성이란 제국의 번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 식민화의 本格化를 드러낸다. ‘이방인’, ‘천한 계급’, ‘방문객’, ‘사치스런 복장’, ‘고귀한 혈통’, ‘교양 있는 얼굴’, ‘시대의 우울’을 거쳐 스미꼬는 한 사람의 ‘여인’으로 번역되며 오해에 기반한 연애 서사가 출발한다. 그 출발점에서 대영은 스미꼬에게 아내나 동료, 다른 피식민 지식인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은 자신의 문학과 생활을 잃어버린 현실에 대해 고백함으로써 서로간의 친연성을 확인하려 한다.

‘.....묵은 책력이!.....흥!’

묵은 책력이란 건 대영이 저를 두고서 스스로 비웃어 이르는 그의 새로운 어휘이 었었다.

진실로 대영 저 자신이 묵은 책력일진댄, 그 묵은 책력이 뼈젓이 기상을 말하고 계절을 가리키고, 즉 연애를 하고 하는 등 적극적인 ‘생활’을 갖는다는 것은 가히 냉소와 민소거리이기에 족한 것이었었다. (385)

자신을 ‘묵은 책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피식민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時代 錯誤的인 것으로 규정지며 제국의 시선을 羨望하거나 模倣하는 행위와 결부된다. 묵은 책력이라는 自責(자기 비하와 자기 문화에 대한 경멸)을 통해 그는 오히려

피식민 지식인 사회에서의 우월성을 확인한다.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시대의 아픔이나 신념의 상실을 경험해 보지 않은 新世代(김중호나 박, 김)와도 다르게 일상의 안일에 젖어 있는 잡지사 사장이나 아내와도 다른 존재, 시대의 아픔을 느끼고 신념의 상실을 경험한 舊世代 지식인으로서 그는 스미꼬라는 제국 여성과의 동일시와 연애를 통해 제국과의 친연성을 확보한다. 그러므로 그는 편집부 청년들의 호기 있는 발언, 김중호와 같은 피식민 예술가의 활동, 젊은 사장의 활기 등을 무의미한 것, 저열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묵은 책력으로서 스스로 생활이 거세된 존재로 호명하는 그는 ‘뼈젓이 기상을 말하고 계절을 가리키고, 즉 연애를 하고 하는 등 적극적인 생활을 갖는다는 것’에 냉소하면서도 연애를 하지 않으려 들지도 않는다. 어느 것에도 의지나 열정을 불태우지 않는 데 묵은 책력다운 면모가 있다고 보며 그는 모든 것을 ‘쫓’ 하는 소리로 수용하고 만다. 사실에 대한 냉소적 수리란 비판도, 수궁도, 궁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延命으로서, 이런 상태에서 대영과 스미꼬의 연애란 연애라기보다 事實의 受理에 불과하며, 때문에 대영과 스미꼬의 소통은 항상 一方的인 것이 된다. 그가 수리하는 사실이란 제국의 논리이며 시선이다. 그는 제국 여성 스미꼬의 눈앞에 鐘閣이나 화신백화점의 한정식, 흰 옷 입은 조선인들을 진열함으로써 자신의 문화를 천박한 것으로 규정하고 문화의 천박성을 인식하는 자신을 제국 주체와 같은 교양을 가진 존재로 동일시하려는 욕망을 나타낸다. 이러한 욕망은 피식민 남성-제국 여성의 연애를 다룬 여러 서사에 특징적인 것이다.

피식민 남성은 제국 여성과 교양의 동질성에 입각해 완전히 소통한다고 간주하지만 이러한 그의 생각은 번역어의 소통에서 비롯된 착각에 불과하다. <냉동어>와 같이 피식민 남성-제국 여성의 연애를 서사화한 한설야의 <그림자>에서 서술자는 교양의 동일성에 입각해 내선 연애 幻像을 꾸며내는 피식민 남성 욕망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제국 여성 치에코와의 연애를 회상하는 조선인 남성의 追憶에서 “그 세계는 동화처럼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⁸⁾이지만, 그것은 사실 “남들이 보면 당신 때문에 쓴 잔을 마신 거”(187)에 불과하다. 10년 전의 失戀談을 동화, 환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그는 자신을 제국 여성과 어쩔 수 없이 헤어졌으나 영원히 사랑으로 묶여 있는 동등한 대상, 교양을 갖춘 청년 紳士라는 假面의 정체성으로 구축한다. 그러나 그 동일화의 환상 속에서도 순간순간 제국 주체의 시선에 응시되는 대상으로서 피식민 남성의 우스꽝스러운 실체가 노출된다. 피식민 지식인 남성은 헤겔이나 <파우스트>와 같은 어렵고 모르는 책을 읽는다는 사실에 집착하며 교양을

8) 한설야, 2003 <그림자> 『식민주의의 협력과 저항』(김재용 등 편), 역락, 187면.

연기하지만, 제국 여성의 응시 속에서 그는 기원에서부터 열등한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다.⁹⁾

미찬가지로 <냉동어>에서 대영은 제국의 주체 스미꼬 앞에서 다른 피식민 지식 층과 자신의 교양을 差別化하며 스미꼬와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이러한 자기 인식이란 幻滅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그는 편집 주간의 위치(권력)에서 김종호와 같은 피식민 문화인들을 비웃는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스미꼬를 향해서 생활을 갖지 못한 묵은 책력이라며 자조하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기, 추월색이니 강상미이니, 그런 걸 만들어 파는 책장사가, 왜 이것두 예술인데 문단이나 사회에서 통히 지지를 안해 준다구 두덜거린다면, 거 어떻겠소?”

“아무려면 그래, 조선영화가 추월색이나 강상미인 그따위밖엔 안된단 말씀이슈?”

“저렇게 디리 아니라구 우기면서, 저급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백년을 가야 그 이상 옛 것은 못만들어요…… 브레인이 그렇게 가난해 봐서, 조선 영화의 항상 항상 하지만 결국은 기술이나 능란해질 뿐이지, 갈 곳이라곤 아메리카의 쌍놈 영화가 되는 것밖엔 없어요!”(440)

조선 영화의 저열함을 함부로 이야기하며 그는 잡지에 자신의 영화 시나리오를 신고 선전하려는 김종호의 행위를 비웃는다. 묵은 책력이라고 자조하면서도 그는 식민지 문화 권력(편집권)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생활을 잃고 자신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피식민 지식 청년들을 향한 우월감, 식민지 문화계의 저급함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 제국의 주체를 향해 자기懷疑를 發言하고, 피식민 주체를 향해 저열함을 비판하는 대영의 모순이야말로 문제적인 것이다. 결국 대영의 자기 인식이란 식민지의 현실과는 무관한, 제국 주체의 시선을 모방해 제국의 언어로서 번역하는 자신일 뿐이다. 피식민 지식인이기에 제국의 현실을 자기화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대영의 無氣力은 제국 여성을 향해 찬란한 신념 때문에 생활을 상실한 묵은 책력으로 번역됨으로써 魅惑的인 것으로 변화한다. “그렇지만 날 같은 사람의 생활을 가져다 미 라구 볼 사람이 더러 있을는지두 모르잖습니까? 마치 기 집을 추하게 그려놓구서 소위 미술적인 미를 발견하구, 줄라 류의 자연주의 작가가 인생의 치부와 암흑면을 묘사해 놓구서 소위 문학적인 미를 발견하구 하듯이, 마치 그러하듯이 병적인 퇴폐의 미를 말이죠!”(405) 피식민 지식인의 무기력이 시대에 절망하는 頹廢의 美로 번역될 때, 번역가로서 대영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는

9) 피식민 남성-제국여성의 내선연애 서사에 대해서는 줄고, 2010 「식민지 시대 소설 속 혼혈결혼의 의미」 『다문화연구』2 참조.

것이다.

피식민 남성 대영에게 제국 여성 스미꼬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불화하는 존재로 번역(오역)되는 존재라면, 제국 여성 스미꼬에게 피식민 남성 대영은 제대로 訣別하지 못한 과거 연인의 代替物로 번역(오역)되는 존재이다. 피식민 주의자 청년으로서 자신에게 사회주의를 소개했으나 變節해서 한갓 부랑당으로 전락해 버린 연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과거 연애와 욕망을 바람직한 방식으로 清算케 하고 건전한 생활을 돌려줄 대상으로 대영을 발견하고 연인으로 呼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미꼬는 생활(제국)을 찾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대영과 결별을 위한 (가짜) 연애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조선행은 대영의 예측과 달리 시대에 대한 절망에서 온 것이 아니라 失行이나 失戀에서 온 것으로, 스미꼬는 주의자 조선 남성과의 연애 끝에 온갖 사단을 겪고 식민지로 도망쳐 온 제국의 부랑 청년이며 제국의 침략 노선을 따라 조선을 거쳐 대륙으로 北行하는 정복자이다. 대영과 스미꼬가 오해를 기반으로 서로에게 동질감을 연기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연기하는 데 <냉동어> 연에서사의 특징이 가로놓인다. 그들은 자주 만나지 않으며 늘 엇갈리기만 한다. 엇갈림으로써 그들의 욕망은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서로에게 환상을 안기는 것이다. 그들의 연애가 환상임을 증명하듯, 스미꼬의 과거에 대한 吐露는 降神術처럼 진행된다. “차차로 이렇게, 지나간 회상에 폭신 잠겨들면서, 실꾸리 풀리듯 잔지란히 풀어지는 설화의, 그 고요한 음성과 나직하니 한결 같은 억양하며 일변 몽상적으로 방심된 얼굴에 꿈쩍 않는 몸자세하며, 모든 하는 양이 어찌면 누구의 혼백에 썩워 사자의 뉘두리를 푸념하고 앉아 있는, 강신술의 피술자랄까, 혹은 신 내린 젊은 무녀랄까, 자못 요기스러움이 없지 않았다.”(414)

번역어로서 제국 여성의 정체에 접근하고 싶은 욕망이 <냉동어>의 根柢에 자리한다. 그녀의 육체에 대한 접근은 피식민 남성 지식인이 얼마나 정통의 日本語를 구사하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일본어로 그녀와 대화하면서 얼마나 진정함을 나눌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결부된다. 피식민 남성 대영은 같은 피식민 지식층이 아니라 제국 여성 스미꼬에게 자신의 내밀한 갈등이나 허무를 피력한다. 왜 그는 번역어를 통해서만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과 같은 피식민인이 아니라 제국 여성에게 자신과 같은 고민을 발견하는 것인가. 이는 결국 그의 허무의식이 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그 허무야말로 그와 제국 사이의 친연성을 드러내는 것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냉동어>에서 대영의 문제는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境界에 선 존재로서 文化翻譯을 수행해야 할 자신의 위치(피식민 지식인)를 忘却한 채 제국을 향해서만 발화한다는 데 있다.¹⁰⁾

그는 제국 여성에게 자기 속에 混在해 있는 전통문화를 번역해 보이지 못하는데, 그 자신 전통문화를 부끄러운 것, 낡은 것, 청산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의 번역은 민족의 과거로부터 제국의 미래를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간다. 제국 여성을 향한 그의 번역이란 식민과 제국의 경계에 선 존재로서 번역 불가능성을 상기하는 대신 제국과의 완전한 동질성 속에서 자기 문화를 제국이라는 수용 텍스트의 욕망에 따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3. 제국 여성의 여행과 피식민 남성의 정주

매클라우드에 따르면 植民主義와 帝國主義는 다른 개념이다. 제국주의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經濟的 軍事的으로 통치하는 것을 支持하는 이데올로기라면, 식민주의는 한 민족 집단이 새로운 지역에 定着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實行的 한 형태이다. 즉 제국주의가 정착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식민주의는 영토에의 정착, 占領地 土着민들을 다스리려는 시도와 결부된다.¹¹⁾ 이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을 거쳐 中原(대륙)으로 이어지는 제국여성 스미꼬의 여행이란 정착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의 정복과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대영과 김종호 등 피식민 지식인 남성들은 스미꼬의 여행을 식민지 조선에의 정착과 결부된 것으로 환상함으로써 식민주의의 관점에서 그녀의 여행에 동참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 즉 그들은 제국주의자 스미꼬의 정복을 식민주의자의 정착으로 간주함으로써 그녀에 대해 일정한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다. 이는 스미꼬의 ‘말 없음’과 결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제국 여성 스미꼬는 여러 피식민 지식인 앞에서 항상 말없음을 표적으로 내세운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끊임없는 오해를 자아내는 스미꼬의 말없음이란 한편으로 과거와 斷絶한 새로운 출발을 의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식민 지식인들에 대한 優越 意識과 소통의 拒否라고 볼 수도 있다. 조선에 이주하려는 식민주의자로서 그녀는 定住를 위한 노력, 조선어 익히거나 조선 情緒나 문화에 대한 이해, 소통 노력을 보

10) 호미 바버에 따르면 문화는 번역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각 문화가 고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다른 문화들과 혼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주와 경계 문화에서 문화와 언어간의 혼합은 전통적인 의미의 번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번역을 일상적인 업무로 만든다. 2개 국어 구사자는 끊임없이 번역(문화번역)한다. 더글러스 로빈슨, 앞의 책, 46면 참조.

11) 존 맥클라우드, 2003 『탈식민주의 길잡이』(박정성 외 편역), 한울아카데미, 22-23면 참조.

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말없음이란 그녀의 여행이 식민주의자의 정주가 아니라 제국주의자의 征服이란 사실과 결부되는 것이다. 스미꼬는 제국의 주체로서 식민지를 經由할 뿐 결코 정주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식민지 조선이란 과거에 대한 결별이 행해지는 공간이기에, 그녀는 대영과의 연애가 성취되는 순간 훌쩍 떠나간다. 그러므로 그녀는 조선어를 배울 필요도, 조선인의 내면이나 생활을 이해할 필요도 없다.

스미꼬는 들어서 주머니맡거나 떠드는 것을, 눈에 호기심이 가득하여, 말은 전연 못 알아듣는다지만 눈치로나마 기분이라도 좀 이해를 하고 싶어하는, 맛보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한 얼굴로 연애 바라다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마지막 그들의 쾌활한 웃음에 섭쓸려 빙긋이 저도 웃는다.(388)

“..... 저기 마주 앉은 두 분이 무얼 가지구 아마 논전을 하셨죠?”

“응..... 그런데?”

“분명 그런 것 같은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예죠!..... 그래두 눈치루나마 기모찌만은 짐작할 수가 있어서 기뻐어요!” (392)

스미꼬는 대영에게 자신을 손님처럼 대하지 말고 집안 식구처럼 대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를 통해 그는 조선인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며 肉體로 조선을 배우고 그 속에서 생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문제는 제국 여성으로서 그가 왜 제국 本土가 아니라 식민지에서 생활을 발견하고 가지고자 하는가에 있다. 스미꼬는 조선어를 ‘전연’ 알아듣지 못하기에 조선인의 생활을 ‘눈치’로 엿보고 ‘기모찌’를 느끼는 것으로 조선에 대한 이해를 대신하려 한다. 이러한 이방인 의식 하에서 그는 누구와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 조선어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녀가 식민지 조선에서 피식민 지식인과 접촉한다는 것은 그의 생활을 파괴하거나 蹂躪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녀는 일방적으로 대영에게 東京行을 청했다가 홀로 대륙으로 향한다. 제국 여성으로서 그는 식민지의 언어조차 이해하지 않은 채(이해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언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개척하고 정복한다. 그녀는 끊임없이 대영에게 애정을 갈구하고 관심을 촉구하며 대영의 모든 현실적인 생활(잡지사 주간, 한 가정의 아버지)을 파괴한다. 또한 그녀는 조선적인 모든 것(종각이나 흰 옷 입은 사람들)에 觀光客다운 호기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

대영은 고개를 돌려, 찻잔이 종각을 가리킨다. 여자는 그러나 땅만 그대로 내려다

보면서 걸을 뿐, 거기엔 주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안 보아도 벌써 다 안다는 그런 낯꽃이었고. (중략)

“그렇던가요, 참..... 아무튼 그렇다든 말씀예요... 그렇다든 전 절대루 이걸 예다가 이렇게 뒤두질 않구서 담박 헐어버리겠어요!”

불쾌함을 어찌하지 못하겠다는 듯, 다뿍 찡그리고 돌아서는 얼굴이, 고적의 관광객다운 호기의 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음은 물론, 그걸로써 대영은 여자의 그 비밀한 반감의 실체를 수월히 기수챤 수가 있었다.(400-401)

대영은 스미꼬에게 “아프리카 토인관이 첨단의 세기와 더불어 동거를” 하는 공간으로 종각의 꼴사나움을 이야기한다. “낡은 시대가 새로운 현대와 동거를 하는, 저 궁상스럽구 초라한 꼬락서니!”(400)라고 묘사하며 동시에 종각처럼 궁상스럽고 초라한 꼬락서니를 한 자신의 현실을 냉소한다. 한편 그는 “오직, 오직 그저, 신념만은 버리질 않구서 있으니 유일한 위안이랄는지!공기만 먹구 생명을 지탱하면서 봄을 기대리는 양서류의 동면처럼.....”(400)이라며 종각과 마찬가지로 낡은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현대와 동거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스미꼬와 동일시하며 同情한다. “..... 그, 다뿍 주접이 든 낡은 종각을 가령 거울이라구 하구 말이죠..... 그 거울에 가서.....거울에 가서 스미꼬 상의 얼굴이.....일테면 뿔이나, 눈곱이 다 닥다닥 끼구.....분 자죽이야 무엇이야 얼룩얼룩 얼룩이 지구.....이렇게 생긴 스미꼬상 자신의 얼굴이고대루 그 거울에 가서 빠안히 비쳐져 보이는 게, 더럭 고만 마음이 불쾌합디까?”(401) 대영은 종각의 시대착오성에서 자신의 시대착오성을 발견하고 그 종각의 거울을 스미꼬에게도 강요한다. 스미꼬가 종각을 헐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自己嫌惡와 연관지으며 그는 스미꼬에게 자신과 같은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영의 언술에는 종각의 낡음에 대한 卑下와 함께 종각과 같은 자신에 대한 동정이 개입해 있다. 그러나 스미꼬는 자신이 경성 부윤이라면 종각을 담박 헐어버리겠다고 말한다. 식민지의 낡은 유산에 제국의 시선을 투영하기에 그는 대영과 달리 손쉽게 종각의 파괴를 이야기할 수 있다. 대영이 종각의 궁상스러움에 분노하면서도 한편 동일시의 위안을 얻는 반면, 제국 여성 스미꼬는 식민지의 낡은 문화를 손쉽게 헐어버릴 수 있도록 당당하다. 스미꼬의 종각 허물 기론이 식민지의 과거 유물에 대한 제국주의자의 단순한 혐오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스미꼬의 방문이란 종각의 파괴와 같은, 처음부터 식민지의 과거와 전통을 지우고 제국의 정복과 침탈을 喚起하는 여행이 아닐까.

스미꼬가 제국을 떠나 식민지로 나아가는 開拓의 서사를 보여주는 반면, 대영은 생활을 잃어버렸다고 自嘲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스미꼬처럼

럼 종각을 헐어트리는 모험, 제국의 주체가 되어 식민지를 개척하는 모험을 수행하지 못한다.

“영화에서 보던지, 이야기나 또 책에서 보기에겐 꼭 로맨틱한 것 같더니, 저 흰옷들 말씀예요, 왜 저렇게 사뭇 못견디게스리 걱정스러 빈대요?”

느닷없이 판소리를 하곤 하는 것은 마음이 줄곧 방심이 되고 헛갈리고 하는 표적이었을 것이다.

“분상두 흰옷이 그렇게 걱정스러 뵈세요?”

“난 스미꼬상의 노스탈지는 없으니깐.....그 대신 모주리 한 대씩 쥐어질러 주구는 싶어!” (중략)

“버릴 양으루 왔더니!무어나 생활허구 바꾸구서 아편일랑 버려 볼 양으루 왔더니.....”(403)

대영은 흰옷 입은 조선인들에 대해 浪漫性을 廢棄하고 우울과 무기력을 읽어내는 스미꼬의 인식을 모방해, 모조리 한 대씩 때려주고 싶다며 극단적 嫌惡感을 드러내고 파괴적 태도를 보인다. 자신은 흰옷 입은 무리들에 속하지 않는 듯한 자기 식민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미꼬는 “남더러만? 재간 어떡허시구?”(403)라고 비웃는다. 대륙으로 떠나가는 스미꼬와 조선으로 떠난 스미꼬는 사실 다른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血統(일본-제국)과 環境(부르주아)에 의해 조선을 아편(주의)과 바꿀 생활(식민주의자의 정주)을 발견하는 ‘로맨틱한’ ‘흰옷들’의 세계로 간주할 수 있다. 스미꼬의 혈통이나 환경은 조선과 만주를 똑같은 정복 서사, 생활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녀가 조선에 정주하면서 생활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그녀가 대영에게 과거의 자신을 투영하고 그와 결별하는 서사를 演行하기 때문이다. 제국 일본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결별하지 못한 과거의 자신과 조선에서 결별함으로써 그녀는 흥분하게 대륙에서 정복서사로서 생활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엔장! (중략)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부터선, 아무래두 맘을 곤쳐 먹어예지만 싶구, 그러다가 한번은, 그러하자든 바닥을 어디 좀 떠보는 게 좋잖을까 하는 궁리가 들겠조? 그러면서 그 끝에 문득, 대체 그 조선이란 데가 어떻게 생긴 고장인구? 예라, 기왕이든 한번!이런 담보가 생기겠조! 그리곤 머어 다시 더 생각할 나위두 없이 당장 그 이튿날구 떠나자는 참인데, 아 어머니허구 언니허구서 그 말을 듣곤, 고만 질색들을 하는군요! 어머니 한단 말씀이, 애야 글썸 조선엔 시방두 호랭이가 시글 시글하디는데, 무슨 수루 게를 가며, 조선사람이라든 말만 들어두 머리가 내들리질 않

느냐구, 가뜩이나 울기 잘하시는 이가, 디리 눈물을 짜면서 어쩔줄을 몰라하구.....언
 닌 또 조선은 하두우 하두 추워서 겨울엔 귀가 얼어 빠진다는 데 어찌자구 그런 텔
 가려 드느냐구 말려쌓구.....틀 그리다가 필경 지가 떠나던 날은 동경역으루 배웅을
 나와선, 그냥 울어짜면서 어머니가, 이 에미 얼굴 마주막 잘 보구 가라구, 그리구
 참.....반질, 이걸.....”(423)

스미꼬의 朝鮮行은 처음부터 그의 과거(주의)와의 단절을 위한 제국주의자의 여
 행이다. 그는 어머니의 반지를 끼고 언니의 모피코트를 걸친 채 식민지 조선에 발
 을 들임으로써 그들의 논리, 즉 식민지 조선은 좁고 열악하며 호랑이조차 득시글
 거리는 未開한 공간이란 인식을 公有하고 그 공간에 제국의 一員으로 들어선다.
 때문에 이전에 가족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살뜰한 애정’을 느끼고 울음을 터뜨린다.
 결국 그는 제국에 인주해 개척서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
 로 ‘묵은 책력’인 남성을 안고 동경으로 귀국하는 일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 스
 미꼬는 제국 부르주아 여성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돌아보며 자신의 출발이
 제국 여성으로서 혜택 받은 출발임을 분명히 한다. 그의 여행은 사회주의라는 아
 편과 偶像을 버리기 위한 여행이며 그것을 버리는 순간 자신은 제국의 주체로 재
 탄생할 것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기를 펴고 맘대로 즐겁게 청춘을 누릴” 수 있는
 제국 청년으로 재탄생할 조건을 갖추었기에 그는 결코 대영과 동질감을 느낄 수
 없다. 피식민 지식인은 아무리 아편 또는 우상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버린다 하더라
 도 좋은 환경을 갖지 못하기에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묵은 책력
 을 반복하는 피식민 남성은 제국 여성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이해받고
 자 하지만 그 이해란 불가능하며, 과거와 결별하는 제국 여성의 서사에 한 축을
 담당하는 데 불과하다.

과거를 고백하고 대영에게 자신의 여행 목적(제국으로의 복귀)을 이야기한 후
 스미꼬는 대영의 일상을 파괴하며 자신에게 沒入할 것을 요구한다. 잡지 편집 일
 이나 아내와의 가정생활을 깨뜨리고 자신의 고통을 위로하는 同伴者로서만 있어줄
 것을 요구하는 스미꼬의 모습은 김중호 등 문화계 사람들과 어울리며 정주할 아파
 트를 꾸미던 이전과 다르다. 그는 ‘심란스러워서’ 하루도 더 조선에 있지 못하겠다
 고 주장하며 대영에게 동경행을 촉구한다. 스미꼬의 시선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고
 우울하기만 한 공간으로 간주되는 조선이란 대영 입장에서는 결코 떠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현실에 만족하거나 애착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곳을 떠난 순간 그는
 자신의 지위, 권력, 묵은 책력으로서의 우월의식까지도 상실한 채 스미꼬의 과거
 연인과 같은 불한당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남성적 매력이나 묵은

책력으로 자처하는 교만한 우울함이란 그가 조선에 머물 때에만 發顯되는 것이다.

제국 여성 스미꼬의 여행길은 제국 首都로의 回歸가 되지 않는다. 그녀는 제국 본토에서 떠나 조선을 거쳐 만주로 향한다. 이런 軌跡은 제국의 침략 軌道를 따라 가며 그는 과거 청산이라는 여행의 목적을 100퍼센트 달성한 채 전쟁터로 떠나간다. 대영을 ‘부득불’ 떼어놓고 “혼자서 교만 대륙을 향해 떠나”(461)는 스미꼬의 목소리는 사랑을 깨뜨리는 허망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차 있다. 그는 대륙으로 떠나감으로써 생활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성취한 승리자가 된다. 대륙으로 떠나감으로써 그는 제국 주체로서의 생활을 갖는다. 또한 그는 피식민 지식인 남성(주의자)을 애인으로 붙들어둠으로써 과거와도 별 갈등 없이 결별하게 된다. 과거와의 원만한 결별을 통해 그는 주의자라는 포즈를 유지한 채 제국의 일원이 되고 조선에 대한 식민주의자의 의식과 대륙에 대한 침략 의식을 끌어안게 되는 것이다. 그는 대영에게 “처음의 즐거운 시기가 지나고 난 그 다음엔, 반드시 우리에게 무위의 권태에서 오는 파탈이 생기고라야 말 것”(462)이라며 “생활이 있어야죠!”라고 強辯한다. 생활이 없는 연애란 성욕이나 걱정일 수밖에 없기에 지속되지 못한다고 보며 그는 의지로써 떠나간다. 이런 결행이 가능한 것은 그가 사실은 ‘늙은’ 사람, ‘안 맞는 시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으로 떠난 순간 그는 이미 제국의 일원으로서 식민지를 바라보며 현실의 시간, 제국의 시간 감각을 회복했던 셈이다.

슬퍼도 미련겨워도, 자랑과 행복 속에 사랑을 보전하겠으니 좋고, 아울러 그곳에다가 아편을 버릴 수가 있을지도 모르니 막상이겠어요. (중략)

스미꼬와 혈통을 더불어 했고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인 그네 씩씩한 장정들이, 그렇듯 세기적인 사실의 행동자으로써 능름히 등장을 했다가 끊임없이 시뻘건 피를 흘리고 넘어지는 그 뾰죽하고도 엄숙한 사실을.....스미꼬 직접 목도를 하고 집하고 할 때에, 진정으로 한 조각의 봉대를 동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려날 것 같아요. 반드시 어떤 흥분과 감격을 느끼고라야 말 것 같고, 아편의 독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463)

스미꼬는 과거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대륙으로 향한다. 대륙은 자신과 ‘혈통을 더불어’ 한 제국의 청년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본민족의 유구한 민족적 사명’인 ‘중원대륙의 경륜’을 위한 ‘새로운 건설을 앞둔 무서운 파괴’가 恣行되는 현장이다. 대륙으로 향하는 스미꼬는 이를 통해 제국의 우위(혈통)에 도달한다. 그녀는 조선인과의 사랑으로 혈통의 경계를 허물었으나 대륙으로 향하면서 오히려 혈통을

회복하고 제국의 논리를 확고히 한다. 조선에 정주하는 일을 건드릴 수 없어하고 조선 지식인 사회의 무기력에 우울을 느끼는 제국 여성은 대륙의 일본 청년들, 제국의 兵士들에게 동질감을 느낌으로써 생활을 꿈꾼다. 즉 아편의 독을 씻는 생활이란, 제국의 혈통과 제국의 열망을 자기화하고 제국의 우월성을 확인할 때에만 성립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혈통적 우월함이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대영이 스미꼬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영은 스미꼬에 대한 참된 애정을 느낀다. 그녀는 결별함으로써 제국 여성의 우위를 확정하고 피식민 남성의 동경 대상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제국의 거울상을 잃었을 때 대영은 피식민의 자리에 머물며, 그 속에서는 제국의 주체와 어떤 소통도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가 딸에게 스미꼬의 澄(澄)자를 따서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난 그래, 효도나 바란다고.....당신은 무얼 바라구서, 뜻있는 이름을 다아 지어주구 그리시우?설마, 저.....”

“냉동어의 향수는 바다에 있을 테지!.....”

대영은 이번에는 제가 한숨을 후르르 길게 내쉬면서 혼자 하는 말로.....

“.....잘들 한다!푸달진 계집애자식 하나를 낳아놓구서.....그나마 칫이레두 미쳐 안 간 핏덩일 놓구서.....에미는 에미대루, 에미는 에미대루, 제마다 제 원념을 그 것한테다가 살려보자구 들구!.....에잇, 구차스러!.....” (468)

‘냉동어의 향수는 바다에 있다. 딸에게 스미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가 여전히 제국의 주체를 꿈꾸며 그와 소통하기를 꿈꾼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스미꼬가 제국의 혈통으로서 대륙으로 향할 수 있음을 향수하며 그 역시 제국의 일원이 되기를 향수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그의 향수는 ‘푸달진 계집애자식’에 기댄 미약한 것, 한심스러운 어떤 것이다. 피식민인으로서 그는 결코 제국에 近接할 수 없으며 냉동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거울상으로 간주했던 스미꼬가 대륙으로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제국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식민인으로서 대영은 아무리 생활을 가지려 해도 정복 전쟁의 현실을 ‘캐취할’ 자격을 갖지 못하며 식민지 조선을 벗어나 대륙으로 향할 수 없다. 그는 대륙으로 향할 수 있었던 제국의 일원 스미꼬를 동경하며 딸에게 그녀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영원히 상실한 제국의 거울상을 그리워한다. 이러한 그리움이란 제국 주체와의 소통의 향수, 일방적인 제국 언어로의 번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과는 다른 형태의 소통을 꿈꾸는 행위와 결부되지 않을까. 대영이 딸에게 스미꼬의 이름을 붙이는 행위란, 자

신과 같은 失敗가 예정된 번역자의 운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딸에게 일본 여성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딸은 태생부터 두 언어의 번역을 수행하는 경계의 존재로서 두 문화를 融合한다. 딸을 통해 그는 자신이 불가능했던 번역, 즉 제국의 질서나 규범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번역이 아니라 문화 속에 混融된 번역을 꿈꾸는 것은 아닐까. 딸의 이름에 반영된 연인의 이름이란 연인과 딸을 동일시함으로써 제국과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을 시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¹²⁾ 이는 한설야 소설 <피>에서 어머니와 제국 여성-연인을 동일시하며 放浪하는 남성 지식인의 서사와도 결부된다. 한설야의 <피>는 자신에게 ‘고향’으로 각인되는 썩발된 여성 어머니와, 지위, 젊음, 부유함과 미모를 과시하는 제국 여성 마사코를 예술(그림)로 융합하는 피식민 지식인의 내면을 그린다. 조선인 어머니와 일본인 연인이 그림이라는 세계를 통해 동일한 아름다움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자리하며 융합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면, <냉동어>에서 일본 여성의 이름을 이어받은 조선인 딸의 운명은 이러한 융합의 또 다른 摸索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민족과 제국의 논리 어느 한쪽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의 소통을 꿈꾸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다를 향수하는 냉동어의 의식이란 가치의 무화나 친일의 논리라기보다 제국과 민족의 논리 사이에서 소통에 대한 ‘푸달진’, ‘구차스런’ 기대를 반영한 것인지도 모른다.

4. 결론

이상으로 본고는 <냉동어>에서 제국 여성과 피식민 남성의 연애가 어떻게 가능하며 그 연애에서 각각의 주체가 慾望하는 바는 무엇인지, 내선 연애의 형상화

12) 김점용은 <냉동어>의 의미를 텍스트의 정신분석이란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제국과 민족의 시선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대영이 유아기로 퇴행하는 징후를 나타낸다고 분석한다. 대영은 딸에게 스미꼬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어머니 대신’으로서 스미꼬와 아버지의 개입이 없는 모자관계를 펼쳐보인다는 것이다. 김점용, 2001 『현실을 비껴가는 방식 : 채만식의 <냉동어>론』 『전농어문연구』 13 참조. 그러나 스미꼬의 이름을 딸에게 붙이는 행위에 대해 과연 제국과 민족의 시선 모두를 비껴가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어머니 대신으로서 스미꼬를 채택하는 행위란, 스미꼬가 선택한 제국의 논리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동으로서 스미꼬라는 어머니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스미꼬의 이름을 붙인다는 행위로 나타난 만큼 대영의 존재는 사라지고 딸과 스미꼬의 관련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피식민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되 제국 여성의 이름을 딸에게 기댄다는 게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다.

가 가진 의미를 細部的으로 살펴봄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재고해 보았다. 채만식의 처녀작 <과도기>가 내선 연애를 형상화할 때 과거의 묵은 조선과 새로운 근대 조선 사이에 발을 걸친 지식인상을 보여준다면, <냉동어>는 새로운 조선(파시즘의 건설적 욕망)과 과거의 조선(양심에 입각한 근대 지성) 사이에 낀 존재로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의식을 보여준다. 제국의 언어로 대화하는 조선인 대영과 일본인 스미꼬 사이에는 처음부터 번역과 오역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냉동어>에서 제국 여성과 소통하기 위해 제국의 언어로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번역하는 피식민 남성의 내면은 자기 문화에 대한 부끄러움과 제국의 주체성에 대한 동일시 욕망을 내포한다. 대영은 스미꼬의 정체에 번역어를 통해서만 접근하기에 그 실체(과거와 의도)를 看破하지 못한다. 그는 조선 지식 청년인 김종호나 박, 김 등의 文靑들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두고 때때로 진한 불쾌감이나 자조적인 저열함을 이야기하는 반면, 일본인 여성 스미꼬에 대해서는 동질감을 환기하고 자신의 내밀한 갈등을 표출해 보인다. 그는 제국 여성 스미꼬를 자신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불화하는 존재라고 번역(오역)하지만 과연 그녀가 대영에게 동질감을 느끼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제국 여성 스미꼬에게 피식민 남성 대영은 제대로 결별하지 못한 과거 연인의 대체물로 번역(오역)된 존재이다. 스미꼬가 조선에 오겠다고 결심한 것은 새로운 생활에 대한 모색을 위해서인데, 이는 과거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청산을 위해서 그는 과거 연인과 같은 사상과 혈통을 가진 조선 지식인 대영과 다시 연애를 하고 미련 없이 떠나간다. 식민지 조선을 거쳐 중원(대륙)으로 이어지는 제국여성 스미꼬의 여행이란 정착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자의 정복과 결부된 것이다. 스미꼬의 대륙행을 통해 제국의 거울상을 잃었을 때 대영은 영원히 피식민의 자리에 머물며, 그 속에서는 제국의 주체와 어떤 소통도 일어날 수 없다. 딸에게 스미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가 여전히 제국의 주체와 소통하기를 꿈꾼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인 딸과 제국 연인을 동일시함으로써 그는 제국과 민족 사이에서, 경계에서의 소통을 貧弱하게나마 꿈꾸는 것이다.

주제어 : 채만식의 <냉동어>, 內鮮戀愛, 翻譯과 誤譯, 旅行과 征服, 문화번역

투고일(2010. 5. 17), 심사시작일(2010. 5. 27), 심사완료일(2010. 6. 16)

<Abstract>

Chae, Man-sic's <Frozen Fish> and the problem on the Marriage
between Imperial Woman and Colonial Man

Kim, Jue-lee *

This study aims to rethink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Frozen Fish>, Chae, Man-sic's novel written in 1940s from the viewpoint of a love narrative between imperial woman and colonial man. In this novel, the love between imperial woman and colonial man supposes the communication with colonial man's translation. It is impossible that perfect and equal communication between colonial man who translates himself with imperial language and imperial woman who says her mother tongue. So the hero, colonial man constantly mistranslates the identity of imperial woman, and performs his love. He (mis)translates the heroine, imperial woman as a one in discord with the present age like himself. Meanwhile, the heroine (mis)translates colonial man as a substitute to her past lover whom she didn't divorce well. Her travel to the colony is the travel for extinction from her past as an imperialist. She goes to the Continent of China by way of the colony Chosun and reaches the high position of imperial lineage through nicely cutting her past. The hero misses the imperial woman, the mirror-figure of himself who can go to the continent and lost forever. This longing to imperial woman relates to the longing and the trial communicates between empire and nation through another way different from one-sided communication which was achieved through translating into the imperial language.

Key Words : Chae, Man-sic's <Frozen Fish>, the Marriage between imperial woman and colonial man, translation and mistranslation, Imperialist's travel, Culture translation

* Full time lecturer, liberal arts courses of Dongduk woman's university